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18:1~2)

찬송 / 21장(통21장) ‘다 찬양하여라’

1. 다 찬양 하여라 전능 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2.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3.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 / 맡은이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설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예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아주시고,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00:1-5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교 / “여호와를 찬양하라”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 / 559장(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복의 말씀 /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뱉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교감이고, 선율이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노랫말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완전히 몰입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노래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어느 누구의 고백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첫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기독교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3절 하반절)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을 함께 맞이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찬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삶의 걱정과 염려에 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허덕이고 유혹에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셋째, 대대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대대로 꼭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비록 눈앞에 닥친 많은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든든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2024

설 가정예배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쁜소식교회
GOOD NEWS PRESBYTERIAN CHURCH